



2026 VISION

흔흔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을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천도서 4장 9절]

충일교회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우리는 어떤 일을 끝냈다고 생각해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이 끝나도 결과가 걱정되고, 한 문제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끝남’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1장 16-23절은 가나안 전쟁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산지와 평지, 남방과 해변 등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모든 일을 끝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오래 전쟁하며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는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과정은 길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쟁의 길이가 아니라, 그 결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23절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인 셈이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인 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래 배우게 하십니다. 믿음의 싸움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인 이 이루시는 승리는 반드시 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주신 안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안과 경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단한분이시라 다같이

말씀봉독 여호수아 11:16~23절 다같이

설교 하나님의 이루신 완전한 승리 설교자

말씀나눔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같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단한분이시라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정이 길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조급함 대신 신뢰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 여호수아 11:16-23절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일하신은 무엇인가요?
- 지금 내 삶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